

해외건설 수주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자간개발은행 활용 방안

Strategies for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Utilization to Enhance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mpetitiveness

손태홍* · 정창구** · 장현승***
Sohn, Tae-Hong · Jung, Chang-Goo · Jang, Hyoun-Seung

Abstract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have maintained stable market share based on high technology and cost competitiveness although international construction market has been stalled due to increasing global economy uncertainties. However,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have relied heavily on the general types of projects in Middle East and Asia although the portion of different types of projects such as Build-Transfer-Operate (BTO), Build-Transfer-Lease (BTL), and Public-Private-Partnership (PPP) has been increasing in the market. When delivering huge projects requiring contractors deal with activities from project planning to operation, securing finance sources and profitability is deemed critical. Therefore,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need more attentions on the construction market supported by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However,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have not utilized effective strategies for the market entry and also government supportive policies are not useful enough to help construction companies. This study aims both to analyze the contract structure of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for presenting critical factors that need to be prepared and to suggest various methods that can be applied to support construction companies that have much interest in the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study, it is important that Korean government provide structural information system, make a specialized organization, prevent over-heating among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and collaborate with Official Development Agency. In addition, it appeared that the fairness and financial stability of project have recognized main advantages of the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Keywords :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competitiveness, international construction, public private partnership, strategy factor*

요 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저성장 지속에 따른 해외건설시장의 성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은 높은 기술 및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견조한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건설시장에서 투자개발형사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의 수주는 일반 도급형 사업에만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사업발굴, 금융조달, 시공 및 운영까지 종합적인 역량을 요구하는 투자개발형사업에 있어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수익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재원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다자간개발은행에 대한 관심 제고는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다자간개발은행에 대한 국내기업의 전략적인 접근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정책도 효율성도 낮은 수준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과 시급성을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다자간개발은행에 대한 인식과 진출 실적을 분석하고 다자간개발은행의 투자시장 진출을 위한 민간 및 정부차원의 역량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자간개발은행 투자사업은 입찰의 공정성과 재원조달 안정성이 장점으로 평가되었으며 국내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전담조직의 구성과 운영, 기업 간 과당경쟁 방지, 공적자금과의 연계성 확보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핵심용어 : 다자간개발은행, 경쟁력, 해외건설, 민관협력사업, 진출 요인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Engineering News Record(ENR)의 발표에 따르면 해외건

설시장의 최근 3년(2008-2010년) 간 매출 규모는 평균 3,800억 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다(ENR, 2009, 2010, 2011). 해외건설시장 정체의 직접적인 원인은 2008년 말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때문이지만 위기 극복

*정회원 · GS건설 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공학박사 (E-mail : amerimnos.sohn@gmail.com)

**해외건설협회 정책연구실장 (E-mail : cgjung@icak.or.kr)

***정회원 · 교신저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공학박사 (E-mail : jang@seoultech.ac.kr)

을 위해 시행된 각국의 건설투자 형태의 경기부양 정책 이자국 건설기업을 위한 시장 확보 수단으로 활용된 점도 원인 중에 하나다. 유로존 재정위기, 중동지역 정정 불안, 미국의 성장 둔화 등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요인들이 유난히 많았던 2011년 해외건설시장도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손태홍, 2011). 그러나 우리나라 해외건설은 2010년 매출 기준 ENR Top 225 업체 중에 11개의 건설기업이 포함돼 시장 점유율 4.8%를 기록하며 국가별 순위에서 7위를 차지하는 최고 실적을 기록하였고, 2010년에는 716억 달러라는 최고 수주실적을 거두어 2011년 매출을 기준으로 한 금년 ENR Top 225 International Contractors에서는 역대 최고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손태홍, 2011).

그러나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괄목할 만한 성장은 중동시장과 플랜트 부문에 편중된 수주를 바탕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도급형 발주사업에서 사업자가 프로젝트의 발굴 및 금융조달 방안을 제시하고 동시에 시공 후 운영까지 책임지는 사업자 주도형의 투자개발형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시장변화와는 무관한 성과이다. 때문에 치열해지는 해외건설시장에서 수주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급형 사업과 더불어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투자개발형 사업도 수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역량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해외투자개발형 사업의 수주 확대를 위해 다자간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MDB)의 투자를 이용한 수주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요 MDB 기관의 특성과 사업 절차를 분석하고 국내기업의 필요 역량과 정부 지원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국내기업이 MDB 시장 진출 시 필요한 사전 지식으로서 그리고 진출 전략 수립에 활용 가능한 자료로서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투자개발형 시장의 확대에 불구하고 일반 도급형 프로젝트 중심인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해외건설협회 정보서비스에 등록된 수주 실적 중 2006년부터 2010년 간 프로젝트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MDB 기관 중 국내기업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 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의 사업 규정, 기준, 절차 등을 현지조사와 문헌고찰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내 건설 및 엔지니어링 기업을 대상으로 공적자금 활용을 통한 해외진출 준비 정도와 MDB 활용 시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 등을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도출하여 정책제안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기업의 진출 전략 수립 시에 필요한 요인과 역량을 도출하기 위해 해당기관의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끝으로 연구결과는 해외건설 유관기관인 국토해양부, 금융기관 및 건설기업 전문가들과의 심의회를 통한 검증을 거쳤다.

1.3 선행연구고찰

해외건설 금융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중심으로 진행된 반면, 프

로젝트 기획에서부터 운영까지 포함하는 대규모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금융 조달 방안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송하성(2005)은 ODA 자금을 활용한 진출 모델을 새로운 수주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유효한 방안으로 제안하였으며, 최진욱 등(2007)은 ODA 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 절차 단순화, 원조규모 확대, 사업 수행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원조 사업 홍보 강화를 중요 요인으로 제안하였다. 마켓애펴리시어벌리시스(2010)의 연구에서는 MDB 조달시장 중 건설 부문 진출을 위해 해외 전문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정부 차원의 MDB 담당관 파견, 시장 정보의 체계적인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적개발원조와 MDB 시장에 관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MDB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더불어 MDB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정책은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1.4 해외건설 수주 실적 현황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주실적을 분석해 보면 투자개발형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해외건설시장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6-2010년 간 수주실적을 요약한 그림 1에서 보듯이 시공자 제공형 프로젝트 수주액은 '07년 2천9백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10년에는 15억 2천만 달러로 '09년에 비해 약 5배 증가한 실적을 기록한 반면에 투자개발형 사업분야에서는 '08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09년에는 '08년도의 약 11%인 4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하였고 '10년에는 '06년의 1/3수준인 5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는 데에 그쳤다. 한편 일반도급형 사업의 수주실적은 '07년부터 '09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10년에는 UAE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하여 60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09년 실적 대비 142% 증가하였다. 이처럼 일반도급형 사업분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구조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시장 및 공종의 다변화만 뿐만 아니라 다자간개발은행 등과 같은 다양한 금융조달시장으로의 진출 확대가 요구된다.

2. 본 론

2.1 MDB에 관한 우리기업의 현황과 인식

해외건설협회(2010)의 연구에 의하면 지역개발기구, M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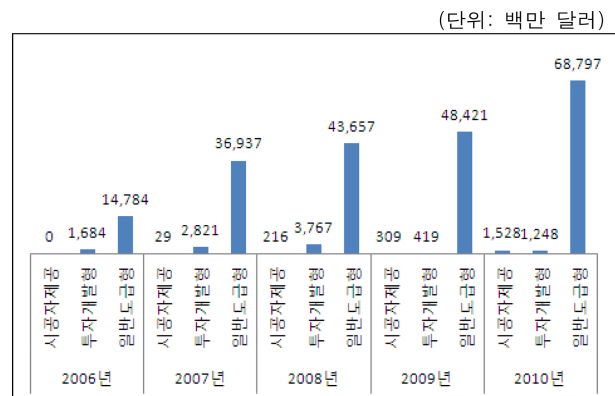


그림 1. 2006-2010년 금융조달방식별 수주실적*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2011)

표 1. 2006-2009년 MDB기관의 차관규모 및 국내기업의 수주 실적** (단위: 억 달러)

기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차관	수주	차관	수주	차관	수주	차관	수주
ADB	79	0.7	100	147	110	484	160	7.9
WB	110	0.3	105	25	186	0	289	0.6
IDB	62	0	87	0	112	0	155	0
계		1.0		172		521		8.5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2011)

등과 같은 공적원조기관의 증가는 세계건설시장에서 투자개발형 사업이 확대되는 원인으로 하나로 나타났다. 그러나 MDB가 관여하는 해외공사에 우리나라가 원조 수원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되면서 각종 원조 분담금을 납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표 1에서 보듯이 아시아 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세계은행(World Bank; WB),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등 주요 MDB기관의 차관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수주는 ADB에만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국내기업의 저조한 수주 실적은 MDB 시장에 대한 무관심과 부족한 역량을 의미하고 있다.

표 1에서와 같은 저조한 MDB 시장 진출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0년 9월부터 30일 동안 국내 기업 120개사를 대상으로 MDB에 대한 관심도 및 사업 참여 유무, 전담부서와 인력 활용 유무, 사업정보 취득 방법, MDB 사업의 장·단점, 정부의 지원방안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서면방식을 통해 실시하여 전체 120부 중에 54부의 응답지를 회수(유효회수율 45%)하여 분석하였다.

표 2에서 보듯이 31%의 기업이 입찰 경험이 있으며 61%의 기업은 MDB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 경험이 있는 기업들 중 67%가 사업을 위한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5인 이하(67%)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MDB사업과 관련한 업무는 해외사업부(94%) 형태의 부서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MDB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은 국내외 에이전트 활용(11%)은 낮은 반면에 해당기관의 홈페이지(89%) 활용이 매우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현재는 체계적인 정보 취득 방안이 부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MDB 사업의 장점으로는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한 입찰방식(33%),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의 안정성(57%) 등이 포함되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국내 기업 간 과당 경쟁(63%)과 낮은 수익성(22%)이 조사되었다. MDB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국내기업들은 정보부족(43%)과 낮은 수익성(40%)을 시장 참여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생각했으며, 적극적인 정부지원방안이 제공된다면 시장참여를 고려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85%). 또한 설문에 응답한 모든 기업은 정부차원의 지원은 MDB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며(100%),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발주 및 활용 절차에 대한 정보제공(48%)과 세제혜택 등과 같은 재정지원(30%)을 꼽았다.

표2. MDB사업에 관한 국내기업 설문 분석

질문 내용	응답 비율	
	있음	없음
MDB발주사업 참여 유무	참여(39%)	미참여(61%)
MDB사업을 위한 전담 부서의 유무	있음(67%)	없음(33%)
MDB전담부서의 규모	5인이하(67%)	6인이상(33%)
MDB사업관련 정보 취득 방법	에이전트(11%)	인터넷(89%)
MDB사업 참여와 관련 의사결정 부서	해외사업부(94%)	기타(6%)
MDB사업의 장점	공정성(33%)	안정성(57%)
MDB사업의 단점	과당경쟁(63%)	낮은 수익성(22%)
MDB사업 중 PPP 사업 참여 유무	있음(6%)	없음(94%)
MDB사업 참여하지 않는 이유	정보부족(43%)	낮은 수익성(40%)
MDB사업 참여를 위한 조건	정부지원(85%)	기타(15%)
국내기업의 MDB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필요 유무	있음(100%)	없음(0%)
MDB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	정보제공(48%)	재정지원(30%)

2.2 주요 MDB 기관의 특성과 사업절차

아태지역의 경제성장과 개발을 위한 각종 공공 및 민간 자본의 역내 투자를 촉진해 지역 내 균형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ADB의 주요 지원 분야는 운송, 통신, 에너지, 의료, 기술지원, 지문, 수자원 및 하수처리, 농업 및 자원, 교육 등이며, ADB 조달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원 분야와 관련 시공, 컨설팅, 엔지니어링 및 장비 공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ADB 사업의 프로세스는 크게 6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사업발굴 단계에서는 사업 계획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수원국과 ADB간 파트너 전략이 수립된다. 뒤이어 사업 준비 단계에서는 사업의 규모 및 목표와 범위 등이 포함된 세부계획서가 작성되며, 사업검토 단계에서는 프로젝트의 기술적, 사회적, 환경적 평가를 포함하는 Fact-finding 조사를 바탕으로 타당성 검토가 시행된다. 타당성 검토 이후에도 프로젝트에 대한 현지 실사 및 컨설팅 분석이 사업심사 및 승인단계에서 시행되며, 이 과정에서 자금 지원을 위한 제안서 및 계약서가 작성된다. 시행단계에서는 수원국과 이행기관의 권한과 의무가 확대되며 ADB는 자금의 집행, 차관계약 준수 여부 등만을 검토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프로젝트의 결과 보고서 또는 기술지원 보고서가 작성된다. 이러한 프로세스에는 사업의 이행기관 뿐만 아니라 ADB의 중앙운영서비스부를 포함한 다양한 부서들이 관여하게 되는데 특히 민간사업부(Private Sector Operation Department; PSOD)는 ADB의 지원목적에 부합하는 인프라와 환경 및 에너지 분야 민간사업에 대해 지분투자 및 차관 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해외건설협회, 2010; ADB, 2010).

IBRD는 저소득 개발도상국에 대한 양허성 자금지원을 담당하는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와 더불어 세계은행을 구성하는 주요 기관이다. 그러나 IBRD가 IDA의 주요 직위를 겸직하면서 IDA의 업무 전반

을 주관한다. IBRD는 1인당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이 6천 달러 이하인 중저소득 개발도상국을 위주로 차관, 지분참여, 지급보증의 형태로 지원한다. 주요 지원 분야는 교통, 통신, 에너지 및 도시개발 등의 인프라 부문과 환경, 교육, 금융분야 개발 등이다. IBRD의 차관은 투자용자와 개발정책용자로 구분되며 투자용자는 빈곤경감이나 경제발전과 관련한 농촌개발, 도시개발, 상하수도, 인프라 등의 프로젝트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IBRD 전체 용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 진행 프로세스는 ADB와 유사한 6단계(사업발굴-사업준비-사업평가-협상-시행-사후평가)의 과정을 거치는데 사업발굴에서 사업평가까지의 과정을 파이프라인(pipeline)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해외건설협회, 2010; IBRD, 2010).

1960년 설립된 미주개발은행은 중남미와 카리브 지역의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촉진과 48개 회원국 간의 균형 발전을 목표로 투자용자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IDB의 경우 수원국의 보증을 담보로 제공되는 차관형태의 지원이 많은 반면, 민간부문의 주도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차관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IDB의 지원 프로세스는 ADB와 IBRD와 유사한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발굴(programming and identification)과 사업준비(preparation) 및 타당성 분석(analysis)후에 승인(approval)과정을 거치는데 일반적으로 6개월이 소요되며, 승인 후 차관의 시행에 따른 사업시행과 완료까지는 최대 5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해외건설협회, 2010; IDB, 2010).

MDB기관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입찰 과정은 세부 절차상의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나 위에서 언급된 세 개의 은행은 유사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다자간개발은행은 프로젝트 수원국 정부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모든 기업들이 균등한 조건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경쟁입찰 방식을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다량의 장비구매와 엔지니어링, 시공 등이 수반되는 중대형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두 단계로 구성된 분리 입찰 방식이 이용된다. 먼저 가격을 정하지 않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제안만 평가되며 두 번째 단계에서 최종 기술 및 가격 제안에 대한 입찰이 진행된다. 기관별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와 기술제안 심사를 위해 고유한 평가기준을 보유하고 있지만 공사실적, 하도급 업체 능력, 재무능력, 과업수행의 적절성, 인력보유 유무 등이 주요 평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해외건설협회, 2010).

2.3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과 다자간 개발은행 활용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은 일반적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주도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전 과정을 담당하게 된다. MDB는 이러한 PPP 사업 지원을 위해 정부보증(Sovereign Guaranteed)과 비정부보증(Non-sovereign Guaranteed)방식을 활용하는데 정부보증방식의 경우에는 개발도상국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고 비정부보증방식은 사업을 담당하는 민간기업에 상업적 조건에 따른 자금 지원이 제공된다. 기관별로 살

펴보면 ADB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를 보증의 형태로 지원하는데 프로젝트 비용의 50%까지 가능한 부분적 신용보증과 국가의 몰수, 전쟁 혹은 폭동과 같은 정치적 위험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ADB의 보증형태의 지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원국 정부와의 관련성과 중요성이 확보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며 동시에 ADB의 지원이 완료되는 시점에서의 금융재원 계획과 모델 구축도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해외건설협회, 2010).

한편 세계은행 산하기관인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도 대부분 개발도상국의 민간분야 사업을 지원하고 민간기업 개발을 위한 자금 투자가 주요 목적이다. 지원의 형태는 크게 직접투자, 자문서비스, 자산관리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며 친환경에너지, 도시교통 및 급수 시설 등 인프라 분야의 건설 프로젝트 경우 직접투자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IFC 지원을 통한 PPP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IFC 역할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발굴과 금융적 측면에서의 경제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된다.

3. 다자간개발은행 시장진출 확대 방안

사업의 공정성과 안전성이 보장되고 새로운 시장 개척에 효과적인 MDB 기관의 재원 활용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투자개발형사업에 대한 국내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MDB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관별 역할과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각 기관별 사업 절차 및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정부차원에서는 국내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MDB시장에 입찰경험이 있는 기업과 참여계획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응답 결과를 분석해 정부 지원방안의 방향과 핵심 요인을 도출하였다.

표 3에서 보듯이 정부 지원방안은 크게 정책적, 재정적, 정보제공과 컨소시엄지원으로 구분된다. 정책적 측면에서의 정부역할에 대해 입찰경험이 있는 기업은 우선 일부 특정기업 중심이 아니라 건설업계 전체를 위한 정부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프로젝트 정보의 선점과 조기사업전략 추진을 위해 정부차원의 DB구축과 설계·시공 분리 방식의 국내 입찰시스템에 다른 입찰자격상의 불이익 방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입찰경험은 없지만 사업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자원 부족을 대상으로 한 자원연계 패키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정부부처와 민간기업 간의 협력 체계 구축과 국내기업 간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및 실적 보유 기업과의 동반진출 기회 제공 등이 정책적 지원 방안으로 조사되었다. 재정적 측면에서의 지원 방안으로는 사업의 재원조달 방법의 다각화와 MDB 사업 참여를 위한 정부차원의 자금 지원 및 보증서 발급 등이 포함되었다. 정보제공과 컨소시엄 지원과 관련한 조사에서는 입찰경험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현지업체와의 제휴를 통한 사업추진 및 네트워크 형성 지원, MDB 전문인력 양성, PM 및 CM 분야의 진출확대 지원과

표 3. 입찰참여 경험의 유무에 따른 기업별 요구사항

구분	입찰참여 경험이 있는 기업	입찰참여 경험은 없으나 시장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
정책적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기업 중심이 아닌 건설업계 전체를 지원하는 체계구축 • 프로젝트 정보선점 및 사업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부차원의 DB 구축과 단계별 정보제공 • 설계·시공 분리방식의 국내입찰시스템의 보완 및 입찰자격조건상의 불이익 방지 차원의 정부지원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연계 패키지 사업 추진시 정부부처와 민간업체 간 협력 채널 구축 • 국내기업 간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 실적 미보유 기업의 경우 실적 보유 기업과의 동반진출 기회 부여
재정적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차원의 자금 지원 및 보증서 발급 협조 • 시장 진출을 위한 KOEXIM 등 금융 조달방안 다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투자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 방법 다각화(MDB재원 지원 등)
현지정보/컨소시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업체 제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정부차원의 전문인력 양성 지원 • PM, CM분야로의 진출 확대 및 현지법인 위주의 사업운영, 설립절차에 대한 통합조사 및 홍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DB 사업수주 지원전담 부서 설치 및 정보제공, 성과사례 세미나 개최 • 투자형 외에 컨설팅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수주 방안 마련 • 해외사업 수주시 공기업과 민간기업 동반진출 지원

현지화 전략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홍보 등이 필요한 방안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MDB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MDB 시장 진출 관련 업무 총괄 기구 설립과 시장 정보제공을 위한 세미나 개최, 기술지원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공기업과의 동반진출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방법에서 서술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외에 MDB 관련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활용하였다. 인터뷰는 WB와 ADB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5인을 대상으로 비구조형(Unstructured Interview)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전략과 범정부 차원에서 준비되어야 하는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적자금과 MDB 자금을 연계한 활용 방안도 제시하였다.

MDB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기업별 전략은 기업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차별화가 필요하다. 대기업의 경우 국내외건설 시장에서의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직접 사업을 발굴해 MDB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 즉, 사업자 주도형 방식의 접근이 요구된다. 국내 민간투자사업에서 도로를 비롯한 교통 인프라 분야와 학교, 병원, 환경시설 등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에 이르기까지 Build-Transfer-Operate(BTO)와 Build-Transfer-Lease(BTL) 방식으로 사업기획에서 자금조달, 설계 및 시공, 운영까지 경험한 기업의 경우 개발도상국에서 MDB 재원을 통한 민자사업 진출 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반면에 규모가 작고 대규모 사업 경험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 MDB가 각 국가별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공사 및 컨설턴트로서 참여해 향후 입찰에 필요한 실적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또는 현지 기업과의 공동 참여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rporate; SPC) 구성 시 일부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 등을 이용해 시장 진입을 가능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첫 번째로 국내기업의 MDB 진출 확대를 위해 MDB 기관에 전문인력 파견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MDB 기관에 출자를 시작한 이후 특정국가의 프로젝트 발굴과 장기적인 사업 기회 구체화를 담당하는 Task Team Leader (TTL) 수준의 인력 파견은 전무하다. MDB 기관의 전문가들은 전문인력 파견과 함께 MDB와의 교류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MDB에서 각 국가에 파견되어 국가별 전략을 수립하고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Country Assistant Strategy (CAS) 인력과의 교류확대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민자사업에 대한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해 개발도상국의 출연금을 언타이드 방식의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으로 지원하고, 우리나라 심사역을 파견하는 조건으로 기금 출연을 한다면 국내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간접적 금융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세 번째로, MDB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통합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해외건설시장의 진출과 MDB 관련 일부 업무는 국토해양부에서, 국내 민간투자사업은 기획재정부, MDB와의 협력, 자금조달, 인력 교류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어 비효율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해외진출과 해외금융조달, 해외민간투자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지원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의 필요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전담조직이 담당할 수 있는 주요 업무는 표 4에서와 같이 개발도상국 진출 지원을 중심으로 국내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심층적인 문헌고찰과 국내건설기업의 의견과 MDB 기관 방문 조사 및 관련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도출되었다. 따라서 연구결과의 검증은 위해서는 해외건설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기관과 건설업계와 금융업계의 전문가들의 평가가 필요했다. 15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연구 심의회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국내기업의 MDB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의 역량보다는 정부의 지원정책의 체계화와 지속성 확보가 필수적인 요인으로 본 연구가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긍정적이었으나 업계와 전문가를 통해 도출된 제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두 번째로는 본 연구 결과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MDB 기관별 수주 가이드라인과 해외민간투자사업의 DB구축을 위한 심도

표 4. MDB 진출 지원 전담조직의 기능

구분	기능(안)
PPP	- 해외건설 PPPs 지원 업무 • 국내 금융(PF) 지원 • 해외 금융(PF) 지원 • 해외 진출용 민간제안사업 정책 연구 등
	- 개발도상국 PPP사업 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 운영 등
MDB	- MDB 발주 사업 지원 • MDB 수주절차와 전략수립 지원 • 혼합금융 조달방안 계획수립 및 운용지원 • 현지법률 자문 및 정보제공
	- ADB 등 MDB 협력 및 사업참여 지원
	- 해외민간투자사업의 평가와 분석 및 DB 구축
	- MDB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있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이 제시되었다. 세 번째로는 본 연구의 결과가 비록 제한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국내업체의 진출 확대 전략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분석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4. 결 론

해외건설시장에서 전통적인 도급방식보다 투자개발형사업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변화가 아니다.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한 일부 중동국가 외에는 제한적인 재정상황의 개발도상국들은 민간자본을 이용하거나 다자간개발은행과 같은 국제기구로 부터의 재정 지원 없이는 대규모 국가사회기반 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때문에 저개발국가를 중심으로 투자개발형 사업의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의 세계경제불안에 따른 민간자본의 위축은 다자간개발은행 활용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국내기업이 다자간개발은행을 활용 확대를 위해 갖춰야 할 역량과 정부의 지원방안을 도출하였다. 국내기업은 다자간개발은행의 재원을 활용한 사업의 안정성이나 공정성 등이 일반 도급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정보 취득 어려움이나 전문 역량 부족으로 진출에는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원 방안은 기업 간 동반진출 활성화 지원 및 과당경쟁 방지 그리고 정부부처와 민간기업 간 협력 채널 구축, MDB 관련 전담 조직 운영, 전문인력 양성, 현지 업체와의 제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가 MDB 기관별 특성과 절차상의 공통적 요인을 분석하였지만 실질적인 사례조사를 통한 분석이 미흡해 향후 연구에서는 기관별 진출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현지 사례조사 중심의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참고문헌

마켓앤폴리시어널리시스(2010) 우리기업의 국제금융기구 조달시장 진출 확대방안, 기획재정부 용역보고서.
 손태홍(2011) 2011 ENR 세계 225대 건설업체 동향분석, GS건설 경제연구소 이슈리포트.
 송하성(2005) EDCF 확대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정책학회 논문집, 한국공공정책학회, 제16-1149호.
 최진욱, 김재준, 전낙근, 이한승(2007) 해외건설 수주경쟁력 향상을 위한 ODA 활용방안,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한국건설관리학회, 제8권 제5호, pp. 173-181.
 해외건설협회(2010)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투자 및 개발차관 활용을 위한 연구, 국토해양부 용역보고서.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웹: www.icak.or.kr <2010/9>
 Asian Development Bank 웹 : www.adb.org <2010/9>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웹 : www.worldbank.org <2010/9>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웹 : www.iadb.org <2010/9>
 Engineering News-Record (2009) ENR Top 225 International Contractors, McGraw-Hill Companies Ltd.
 Engineering News-Record (2010) ENR Top 225 International Contractors, McGraw-Hill Companies Ltd.
 Engineering News-Record (2011) ENR Top 225 International Contractors, McGraw-Hill Companies Ltd.

(접수일: 2012.6.5/심사일: 2012.6.21/심사완료일: 2012.7.2)